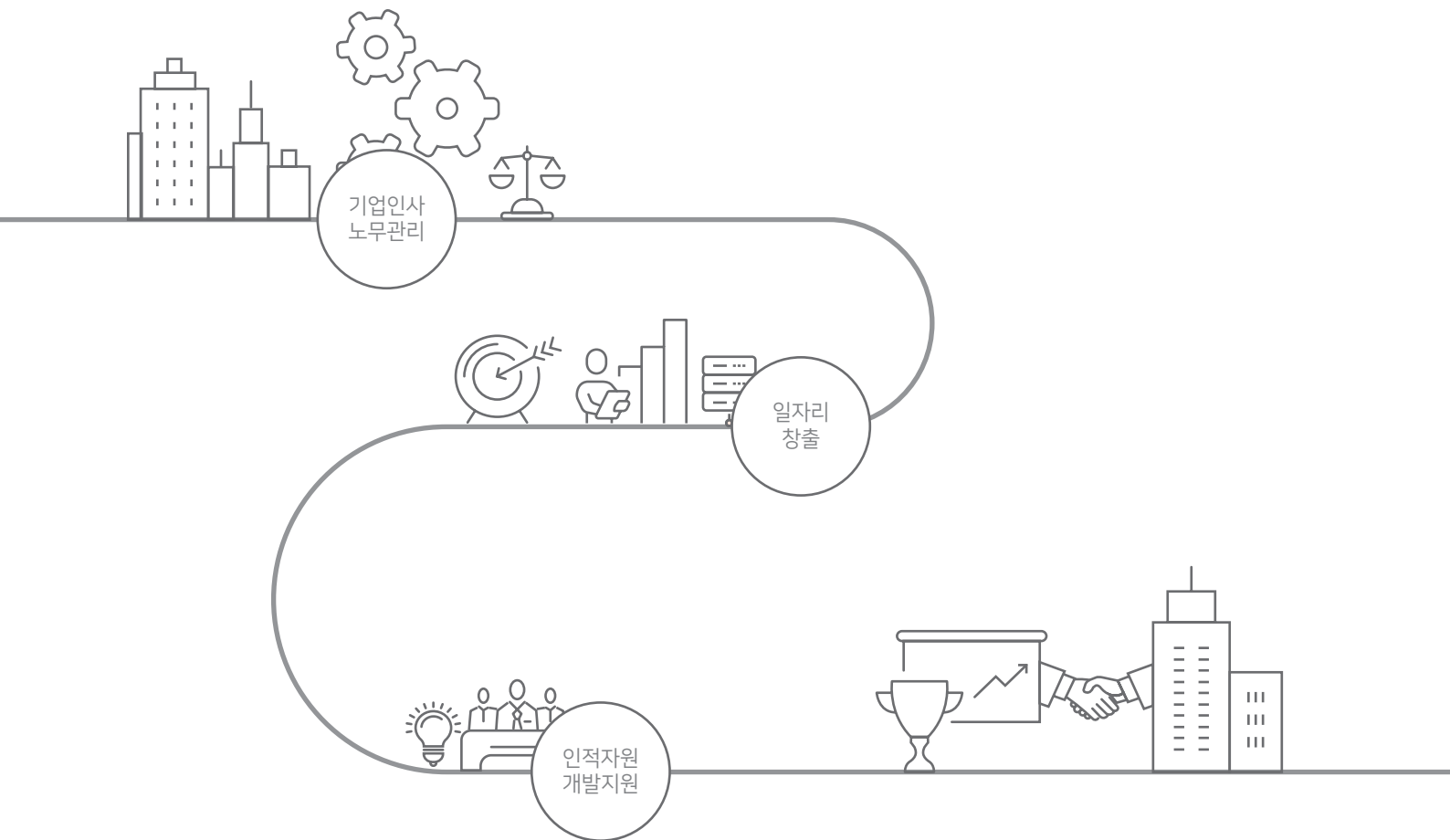


# - 주간 - 광주 경영계



## 광주은행

### ◆ 설 명절 중기 특별자금 6천억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됐으며, 노

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업체의 요청을 신속히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발 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 대학생 홍보대사 14기 해단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대학생 홍보대사 14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4기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총 3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4월 말 발대식을 통해 공식 활동을 시작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과 새로운 브랜드 홍보 기획,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협업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이번 대학생 홍보대사는 MZ세대만의 색다른 방법으로 소통의 창을 대폭 넓혔다. 구체적으로 ▲ 유스(YOUTH) 고객을 위한 소비 꿀팁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금융교육 ▲광주천 쓰담달리기 봉사활동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36회의 다양한 사회공헌·홍보 활동을 통해 광주은행의 ESG 경영철학을 지역 사회 곳곳에 전파했다.

## 광주신세계

### ◆ '오징어 게임' 굿즈 팝업 오픈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오는 23일까지 본관 1층에 오징어 게임 팝업을 연다. 팝업 매장에는 오징어 게임과 콜라보한 '말본 골프', '브라운 브레스', '벌스데이수트', '로우로우', '오드 삭스' 등 다양한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골프웨어 말본 골프는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핑크색 컬러로 눈길을 끄는 스탠드 캐디백을 비롯해 맨투맨, 볼케이스 커버 등을 판매한다. 이밖에 스트리트 캐주얼 브라운 브레스 티셔츠, 벌스데이수트 후드티 등을 구매 가능하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이어 나가는 오징어게임의 팬들을 위해 광주신세계에 팝업 매장을 열게 됐다"며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굿즈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 동계 대학생 백화점 현장실습 운영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올해도 현지법인으로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유통업'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실습은 전남대학교 9명, 조선대학교 3명 등 총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2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백화점 각

파트별 현장실습을 통해 유통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MD들이 매장을 채우고 있고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통해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아오게끔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백화점과 유통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금호타이어

### ◆ "이노뷰 안착 성공적"... , 전기차전용 브랜드로 질주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지난해 목표 매출액을 4조5천600억원으로 설정하고 18인치 이상 고인치 제품 판매 비중 42% 달성, 글로벌 OE 매출 기준 EV 타이어 비중 16% 이상 확보 등 비즈니스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금용가 전망보다 목표 매출액은 높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작년 3분기 실적발표 당시 "매출액 기준(누적 매출액 3조2천914억원) 72% 달성했고, 고인치 제품 판매는 41.8% 달성, EV 타이어 OE 납품 비중은 14% 수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은 전기차 중심이 될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시장을 지켜보고 제품으로 출시할지, 선점할지 결정에서 소비자에 이미지 각인을 더욱 신경 쓴 것"이라고 말했다.

## 디에이치글로벌

### ◆ 4025만원 부안군 기탁



디에이치 글로벌(회장 이정권)은 지난 부안군청을 방문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25만원 등 총 4025만원을 기탁했다.

부안군 상서면 출신인 이정권 회장은 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며 평소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아 근농인재육성장학금을 매년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매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군의 복지와 공익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정권 회장은 "부안은 제가 자라온 소중한 고향이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곳으로 2025년 첫 기부자로서 부안의 더 큰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보해양조

### ◆ 지역인재에 장학금 4천4백만원 전달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본사에서 '2024년 보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인재 35명에게 총 4천 4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은 전라남도 교육청 등 7개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장학

금은 기본재산 수익금과 기탁금으로 마련되었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KDN

### ◆ '공감 경영소통회' 개최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공감 경영소통회'를 개최하고 임직원간 쌍방향 소통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 및 이슈에 대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사 속 여러 제국의 흥망과 산업혁명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에너지(전력) 산업의 변화와 연관된 국가의 성장과 리더십으로 한전KDN의 나아갈 바를 역설한 것에 대해 현장 참여 직원

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강연에 이어진 공개 질의응답 시간에는 온·오프 라인을 통한 인사·급여·미래 사업 등에 대한 질문에 실제적 회사 현황 공유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상형 사장은 "이번 '공감 경영소통회'는 CEO 직접 강연과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진행하면서 어느 때보다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회사 경영에 대해 직접 참여하는 공감 경영과 열린 경영으로 국민과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로 성장하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한전KPS

### ◆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중앙·지방 공기업·공단, 준정부기관 등 정부기관 554곳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KPS는 청구 처리 적정성·준수율 등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한 가운데 총점수도 지난해(98.06점)보다 높은 99.2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평가기관 평균(92.5점)을 크게 상회 했고 동일 평가 집단인 중앙 공기업군 평균(96.2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홍연 사장은 "앞으로도 고품질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MCS

### ◆ "도서 지역 전력공급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일익"



한전MCS(사장 정성진)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5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성과와 올해의 주요 경영 화두를 발표했다.

한전MCS는 올해 먼저 배전 사업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장과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성진 사장은 "한전MCS는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金石爲開(금석위개)'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다. 2025년이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양에너지

### ◆ 2025년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 회)는 광주광역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발맞춰 최근 신입사원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사원들은 지난 5월부터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실무진 및 임원면접을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인턴으로 선발됐다.

이후 4개월 동안 회사의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인턴십 과정을 통해 1일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이번 채용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인재를 발굴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 회 대표이사는 "해양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며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난 해소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해양에너지의 지속 성장을 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 ◆ 광주상공회의소로부터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공로상 수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의 박상영 부총지배인이 광주 상공회의소 창립 제 88주년 기념 광주상공대상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표창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헌신과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박 부총지배인의 장기근속은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박 부총지배인은 호텔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장기근속 하며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호텔의 품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박 부총지배인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도 호텔 업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영하 대표이사는 "박상영 부총지배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아 받은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박상영 부총지배인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성취와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이야기



홀리데이인 광주호텔(대표이사 주영하)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호텔은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환경 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3월에는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했다. 호텔은 사무실 공

간에서 1시간 동안 소등을 시행하며 친환경 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에 동참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자립준비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진출의 첫걸음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학교 유학생들의 기업탐방조사에 협조하여 글로벌 인재 포용과 기업 다양성을 알리는 데도 기여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6월 환경의 날을 계기로 전기 사용량 절감, 쓰레기 다이어트,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사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커피머신을 도입해 직원 복지 강화와 함께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실현했다. 10월에는 아름다운가게와 협력해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했다. 더불어, 자원순환 실천 서약을 통해 전 직원이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동참했다.

주영하 대표이사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



## <제1671회 금요조찬포럼>

### 알아두면 도움되는 고용노동정책

(이성룡 청장)

1671회 금요조찬포럼은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을 초청하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고용노동정책」을 주제로 광주고용청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의 전반적인 상황과 최근 개정된 노동법과 각종 노동정책 등에 대한 통계와 실사례에 대하여 강연했다.

“지역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역기업 또는 개인 모두 최근 개정된 노동법이나 고용·노동정책 등 관련 정보들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지표인 ‘노사분규 건 수’가 9건으로 전년 동기(44건) 대비 대폭 감소했고, ‘근로손실 일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광주·전남의 취업자 수 등은 3분기 기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올해 고용노동부의 주요 추진 성과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등을 확대 시행할 수가 있게 된 만큼, 향후 임신·출산 등 업무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타지역은 인구 감소에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아직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생산가능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광주고용청은 고용지원금 사업, 수요데이 in광주, 기업도약 패키지 사업 등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오니 광주경총 회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 1. 경제동향

### ◆ 통계청,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24.12.30)

- **(생산)** 2024년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0.7%), 서비스업(0.2%) 등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0.4% 감소(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 전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전월대비) : 0.6('24.7)→1.1(8)→0.4(9)→0.2(10)→0.4(11)
  -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3.9%)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3.2%)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금융·보험(2.9%), 수도·하수·폐기물처리(5.7%)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4년 1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8%로 전월대비 0.5%p 하락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71.1('24.7)→74.2(8)→73.4(9)→72.3(10)→71.8(11)
- **(제조업 재고율)** 2024년 11월 제조업 재고율은 111.8%로 전월대비 0.5%p 하락(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15.0('24.7)→110.4(8)→106.7(9)→112.3(10)→111.8(11)
- **(소매판매)** 2024년 11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4년 3월(3.4%) 이후 9개월 연속 감소.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대비) : 2.2('24.7)→1.5(8)→2.2(9)→0.9(10)→1.9(11)
- **(설비투자)** 2024년 11월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0.1%)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0%)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전년동월대비 2.6% 증가)
- **(건설투자)** 2024년 11월 건설투자는 토목(7.7%)에서 늘었으나, 건축(2.9%)에서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전년동월대비 12.9% 감소)
  - \* 건설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4년 5월(3.2%) 이후 7개월 연속 감소.
  - ▶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대비) : 4.9('24.7)→△9.6(8)→14.0(9)→10.8(10)→12.9(11)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6(전월대비 0.5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8(전월대비 0.1p 상승) 기록

### ◆ 고용노동부, 「2024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12.30)

#### < 고용 부문('24.11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2,01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0.4%) 늘어나며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입·이직) 입직자는 8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3.7%) 감소했고, 이직자는 8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1천명(△3.4%) 감소

#### < 근로실태 부문('24.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92만 2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원 (3.4%)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2.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4시간(3.7%) 증가  
※ '24년 10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19일→20일)

### ◆ 통계청, 「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24.12.31)

- 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2.3% 상승하여 2023년(3.6%) 대비 상승률이 둔화  
※ 최근 5년('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0.5%('20)→2.5%('21)→5.1%('22)→3.6%('23)→2.3%('24)
  - － (지출목적별) 기타 상품 및 서비스(4.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3.9%), 의류 및 신발(3.3%) 등 12개 지출부문 모두 전년대비 상승
  - － (품목성질별) 상품은 농축수산물(5.9%) 등이 올라 전년대비 2.4%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3.0%)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2% 상승
- 2024년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2.1% 상승했으며,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대비 2.7% 상승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연간 수출입 동향」 발표 (1.1)

- 2024년 수출은 6,837.6억달러(전년대비 8.2% 증가), 수입은 6,319.9억달러(전년대비1.6% 감소)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17.7억달러 흑자를 기록  
\* 2024년 연간 수출액(6,837.6억달러) 규모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역대 최대치  
\* 2024년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는 2018년(696.6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치



※ 최근 5년('20~'24년) 수출입 증감률 추이 : [수출] 5.5%('20)→ 25.7%('21)→ 6.1%('22)→ 7.5%('23)→ 8.2%('24) [수입] 7.1%('20)→ 31.5%('21)→ 18.9%('22)→ 12.1%('23)→ 1.6%('24)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전체수출의 약 78% 차지) 중 이차전지, 철강, 일반기계 등 7개 품목은 수출이 감소한 반면, 컴퓨터, 반도체, 선박 등 8개 품목은 수출이 증가

※ 2024년 15대 주력 품목 수출증감률(%): (컴퓨터) 76.7, (반도체) 43.9, (선박) 17.6, (바이오헬스) 13.1, (무선통신기기) 11.2, (석유화학) 5.0, (디스플레이) 0.9, (가전) 0.4, (자동차) 0.1, (자동차부품) 1.8, (석유제품) 3.3, (섬유) 4.0, (일반기계) 4.1, (철강) 5.4, (이차전지) 16.5

- (지역별) CIS( 8.9%), EU( 0.2%)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했고, 중남미(17.8%), 미국(10.5%), 중국(6.6%), 중동(4.8%), 아세안(4.5%), 인도(4.2%), 일본(2.0%)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

※ 2024년 중국 수출액은 1,330.3억 달러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여 2023년 감소(19.9%)에서 증가로 전환. 2024년 미국 수출액은 1,277.9억 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여 2023년(5.4%)에 이어 증가세 유지

## ◆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2)

-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24년 2.1%\*, 2025년 1.8%로 전망

\* 지난 2024년 7월 전망치(2.6%) 대비 0.5%p 하향 조정

- (소비)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이자지출 증가 등 소비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2024년 1.2%에서 2025년 1.8%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투자) 설비투자는 첨단업종 투자수요, 통화긴축 완화 등으로 2024년 1.3%에서 2025년 2.9%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건설투자는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2024년 1.5%에서 2025년 1.3%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수출) 수출은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 美 정책전환 등으로 2024년 8.2%에서 2025년 1.5%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고용) 2025년 취업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2024년(17만명 증가 전망)보다 증가 폭이 낮은 12만명 증가 전망
- (물가) 국제유가 등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경기적 요인에 따른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소비자물가는 2024년(2.3%)보다 낮은 1.8%로 전망
- (경상수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경상수지는 2024년 900억달러 흑자에서 2025년 800억달러 흑자로 흑자가 지속될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1.6)

-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FDI, 해외→국내)는 총 147.7억달러(도착 기준)로 전년대비 24.2% 감소
- (업종별) 제조업은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등의 감소 영향으로 47.2억달러(전년대비 17.2% 감소)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은 여가·스포츠·오락, 숙박·음식점업 등의 감소 영향으로 90.3억달러(전년대비 30.9% 감소)를 기록
- (국가별) 일본 17.9억달러(전년대비 107.8% 증가), 홍콩 7.1억달러(113.5%), 중국 5.1억달러(66.9%), 미국 17.3억달러(△27.9%), 독일 1.5억달러(73.0%) 등 기록

◆ 한국은행, 「2024년 11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8)

- 2024년 11월 경상수지는 93.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38.9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규모가 54.1억달러 확대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 89.7(24.7)→65.2(8)→109.4(9)→97.8(10)→93.0(11)
  - － 상품수지는 97.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68.8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 상품수지는 '23년 4월(6.1억달러 흑자)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 상품수지 추이(억달러) : 83.3(24.7)→65.2(8)→104.9(9)→81.2(10)→97.5(11)
  - － 서비스수지는 20.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22.1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
  - ※ 서비스수지는 2022년 5월(2.8억달러 적자) 이후 31개월 연속 적자 기록
  - ▶ 서비스수지 추이(억달러) : 23.8(24.7)→12.3(8)→22.4(9)→17.3(10)→20.9(11)
  - －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소득을 중심으로 19.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지난해 11월 1.2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 이전소득수지는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6.6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

## 2. 노사동향

### ◆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중심으로 2025년 고용노동정책 추진 예고

- 정부는 1. 2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 정부는 2025년 4대 정책 분야로 ① 민생경제 회복, ② 대외신인도 관리, ③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④ 산업경쟁력 강화를 설정
    - － 특히, 정부는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해 ①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②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 ③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추진, ④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추진할 예정
  -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성 강화 및 노동약자 보호 중심의 2025년 고용노동정책 방향 제시
    - － 고용부는 취약계층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청년·중장년 취업 훈련 및 채용서비스 확대, ② 육아휴직급여인상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계획
    - － 또한, 고용부는 노동약자보호를 위해 ① 임금체불 근절 정책\* 강화,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③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추진 계획
- \* 고용부는 12. 30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94명) 및 신용제재(141명)를 단행해 근기 법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 및 대출, 신용카드 사용제재(7년)등 불이익 조치

### ◆ 양 노총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사업방향 제시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고용노동정책과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주장
  - － 특히, 김동명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한국노총은 장외집회를 통해 대통령 퇴진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권퇴진 투쟁과 함께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무효화 투쟁에 주력할 계획
  - － 특히, 민주노총은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 3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결의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이른바 ‘민주노총 직접 체포 투쟁’ 예고
  - － 민주노총은 지난해 집회 신고 범위 이탈(‘24. 12. 12, 12. 22),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체포를 예고한 만큼 법치 훼손 증가 우려
-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①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 ②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③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 강조

#### ◆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경사노위는 연구회발족

- 국회 내 사회적 대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1. 10 제3차 실무협에서 논의 의제, 운영방향 등 논의 예정
  - ※ 노사 5단체 :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난해 두 차례 진행(11. 22, 12. 27)
    - 국회의장실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개선을 위해 ① 1~2월 노사단체의 요구의제 의견 수렴, ② 2월 말~3월 초 의제 합의 추진 계획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는 의제 선정과 관련한 노사단체 간 이견이 큰 상황
- 한편, 한국노총은 '24. 12. 3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지만, 1.8 경사노위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는 참여
  - ※ 연구회는 공동좌장 2명(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경영계 및 노동계 각각 2명, 정부 2명, 전문가 9명(총 17명)으로 구성되며 10개월('25. 1. 8 ~ '25. 11. 7)간 운영될 예정
  - ※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 한국노총은 당분간 해당 연구회 외에 경사노위 회의체 불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연구회 참여를 계기로 상황 변화에 따라 경사노위 복귀 논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

#### ◆ 노동계는 개별기업 노사관계의 정치쟁점화에 주력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며 한화오션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 모색
  - ※ 한화오션 협력업체 10여개사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24. 12. 23부터 집단교섭 진행
  -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2022년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사태로 발생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소송 취하, ▲1일 기본급 24,000원 인상, ▲상여금 300% 지급 등요구
  -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교섭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한화오션)과의 교섭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1. 7 기자회견을 통해 원청기업(한화오션)과 하청노조의 교섭을 촉구
- 금속노조 한국오티칼하이테크지회는 회사 관계사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4. 1. 8부터 1년 여간 고공농성을 지속해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

-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텐코 그룹의 자회사로 LCD 편광 필름 등을 생산해 옴.
-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생산동 내부 및 설비가 전소됨에 따라 법인 청산 의결
  - 시민사회단체들은 1. 7 기자회견을 개최해 1. 10~11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함께 연대 농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쟁점화 시도
  -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24. 12. 3 우원식 국회의장 및 야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요청